

‘문화의 향기’ 배달합니다

문화·예술단체 찾아가는 서비스

소외계층 위한 전시·음악회 어린이·장애인 행사도 풍성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진행되는 각종 전시·공연 행사가 도심에 집중되면서 전남 지역민들이나 복지시설 생활자 등 문화 소외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들의 문화향유 욕구가 상승하고 있는 반면, 문화적 ‘허기’를 달래주는 문화행사가 삶의 현장에서 열리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 공공기관이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문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들을 위해 ‘찾아가는 문화서비스’를 실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있다.

국립 현대미술관의 ‘찾아가는 미술관’은 오는 4월5일 보성 백민미술관을 시작으로 전남 5개 지역을 순회한다.

‘찾아가는 미술관’은 ‘삶의 여유’, ‘재현으로서의 자연’, ‘일상의 향기’, ‘마음으로의 여행’ 등 5가지 주제로 국내 유명 작가들의 작품 106점을 전시한다.

순회전은 화순 오지호 미술관(4월26~5월1일), 신안 증도 갯벌생태전시관(7월26~8월4일), 해남 문화예술회관(9월12~18일), 순천 문화예술회관(10월24~10월30일) 등에서 열린다.

올 중순부터는 전남 지역 학교와 고아원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프로그램도 진행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실제 유물을 통해 우리 역사를 접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전남 지역 초중등학교를 찾아가는

국립 중앙박물관의 교육전시 프로그램인 ‘찾아



최근 미술관과 예술단체들이 소외계층들을 찾아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베푸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해 광주 시내 한 학교에서 열린 광주시립국극단의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

가는 박물관’은 9월부터 완도 금당초·중학교(17일), 금산초교(19일), 포두초교(20일·이상 고흥), 화순 능주초교(11월13일), 장성 월평초교(11월16일)에서 열린다.

‘고구려 역사와 문화를 찾아가서’를 주제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박물관’전에서는 ‘해룡음무늬금동장식’ 등 대표적인 고구려 유물의 복제 및 복원품 60여 점이 전시된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교실’로 소외계층 어린이를 만난다.

시립미술관은 미술 전문치료가 미술심리와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어린이 미술교실’을 오는 7월부터 두 달 동안 광주 시내 소외 시설에서 운영할 방침이다.

광주문화회관은 광주시향·무용단·국악관현악단·합창단·관현악단·소년소녀합창단 등 6개 광주시립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찾아가는 예술단’ 활동을 통해 광주 시민들에게 예술향기를 전하고 있

다.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을 비롯해 병원, 각급학교, 기업체 등을 직접 방문해 진행하는 찾아가는 예술단은 지난해 선명학교, 광주장애인복지관 등 84곳을 방문, 멋진 무대를 선보였다.

올해 시립단체가 계획하고 있는 공연은 모두 55회, 국극단이 13~14일 광주광산구청을 방문, 구민들을 대상으로 관소리 등을 선사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국악관현악단이 KT 전남본부에서 공연을 갖는 등 다양한 무대를 준비중이다.

찾아가는 예술단은 또 시립단체들의 정기 공연 일정과 겹치지 않는 선에서 각급학교와 복지관 등의 신청을 받아 20회 정도의 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문의는 광주문화회관(062-510-9251)로 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예향 ‘남도사색’展

오승우씨 등 출향작가 95명 한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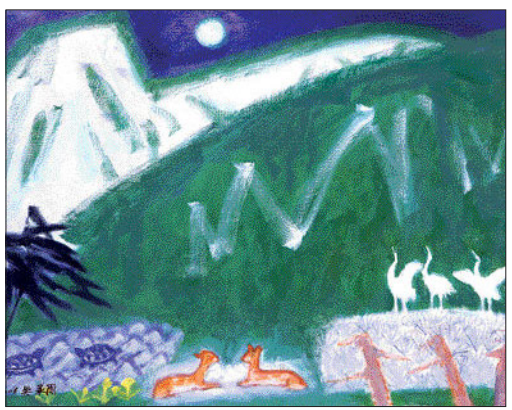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출향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 데 모은 전시가 마련됐다.

광주시립미술관이 다음달 8일까지 광주 전남 출신 작가 95명이 참여하는 ‘남도사색(南道思索)’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들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호남 미술의 현주소를 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출품작은 한국화, 서양화, 조각 부문으로 남도의 전통적인 정서를 주제로 다양한 작업 세계를 보여주는 것들이다.

전시에 참여한 대표적인 작가들은 안동숙 전 이화여대 교수, 이창주 전 조선대학교수, 이태길 목우회 이사장, 송용 무진회회장, 오승우 예술위원회, 탁연



오승우 작 ‘집성상’

하 전 조선대 교수, 임태정 전 서울대 교수 등이다. 박지택 광주시립미술관장은 “이들의 작품을 통해 호남 미술의 다양한 면모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521-7556.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동문화’ 후원 시민위원회 출범

광주 지역 문화시민단체인 ‘대동문화’를 후원하는 시민운영위원회가 출범했다.

(사)대동문화(회장 조상열)는 김양근 변호사(초대 헌법재판관)를 비롯한 50여 명의 각계 인사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12일 무등파크호텔에서 ‘대동문화 재단 운영위원회’ 창립식을 가졌다.

지역 인사들이 문화단체를 돕기 위해 후원회를 결성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로 운영위원들은 연간 100만원씩 협찬기부를 통해 매세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운영위원들은 고재일 대창문수사장, 김혁중 광주대 총장, 정영섭 변호사, 황영성 전 조선대 부총장 등 지역 경제, 학계, 법조계 인사 등 5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음악감상실 ‘베토벤’ 구하기 나선 ‘베살모’



25년 세월 동안 광주를 지켜온 클래식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베토벤은 언제나 그자리에...”

후원 회원 모집...음악 감상회·철학카페 등 구상

소설가 윤대녕이 2001년 펴낸 산문집 ‘그녀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문학동네)에는 어느 봄날 광주의 음악감상실 ‘베토벤’ 풍경이 등장한다. 10여년째 광주를 찾을 때면 이곳에서 음악을 듣고 차를 마신다는 윤씨는 크라이슬러의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며 통유리 밖으로 무등산의 그림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고 적고 있다.

옛 전남도청앞 금향빌딩 6층에 자리잡은 클래식 음악 감상실 ‘베토벤’은 지난 1982년 문을 연 이후 오랜 기간 광주 사람들의 마음을 살찌운 문화 공간이자, 추억이 깃든 일가장 같은 곳이다. 시민들 뿐 아니라 광주를 방문한 예술가들도 한번쯤 꼭 들렀다 가는 장소이기도 하다.

최근 운영 난을 겪고 있는 베토벤을 돕기 위한 ‘음악감상실 베토벤을 살리기 위한 모임’(이하-베살모 Besalmo)이 결성돼 눈길을 모은다. 베토벤을 자주 찾는 단골 고

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모임이다. ‘베살모’는 회원 모집을 시작하면서 작은 행사들을 꾸리기로 했다. 우선 매월 셋째주 토요일(오후 3시~5시) 무료 음악감상회를 연다. 17일 첫 감상회에서는 ‘화사한 봄날에’를 주제로 ‘봄’과 관련된 다양한 음악들을 들려줄 예정이며 ‘르네상스 그림해설’ ‘비오는 날의 음악’ 등 매월 다양한 주제가 준비돼 있다.

베토벤의 단골이었던 성진기 전남대 명예교수는 작은 철학카페를 구상중이다. 기회가 닿으면 문학, 예술, 역사 등 타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소규모 인문학 강좌를 열 수 있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10만원(1년)의 회비를 내는 회원에게는 1년 동안 무료로 차를 대접한다. 회원들에게는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 교향곡 6번 ‘전원’ 등 베토벤의 곡으로만 구성된 ‘베토벤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베토벤’이라는 CD도 선물로 줄 예정.

정세영 가야금 독주회

15일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정세영 가야금 독주회가 15일 오후 7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린다.

정씨는 이번 공연에서 ‘송구여지곡’ ‘김죽과류 가야금

산조’ ‘고향의 봄’ ‘아리랑’ ‘출강’ 등 전통곡과 창작음악을 들려줄 예정이다.

정남대를 졸업한 정씨는 호남예술제 최고상, 목포전국국악경연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하늘다래 예술단과 무등가야금연주단에서 활동중이다.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 large grid of various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legal services, and local business notices.